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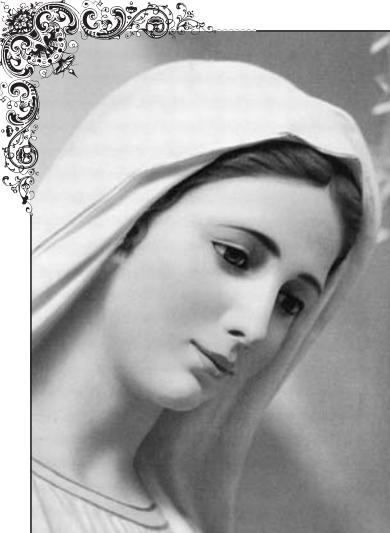
# 메주고리예



Medjugorje

March, 2008 제43호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은총의 시기에 나는 다시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비록 그 양이 작을지라도 아직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열렬하게 바치는 기도로  
너희의 하루가 엎어지기를 바란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8년 2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 가톨릭 성직자와 수도자들 세속화 우려



교황청이 최근 가톨릭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세속화 경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교황청 수도회성 장관 프랑크 로데 추기경은 2월 15일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과 대담을 갖고, "지나친 물질주의적 사고방식과 도덕적 상대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신앙생활을 약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두 가지 요소"라며 최근 가톨릭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세속화 경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로데 추기경은 특히 "오늘날 현대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상대주의는 하느님의 진리를 온전히 왜곡하는 근본주의와 하느님의 섭리 자체를 부정하는 허무주의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기경은 "서구 산업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와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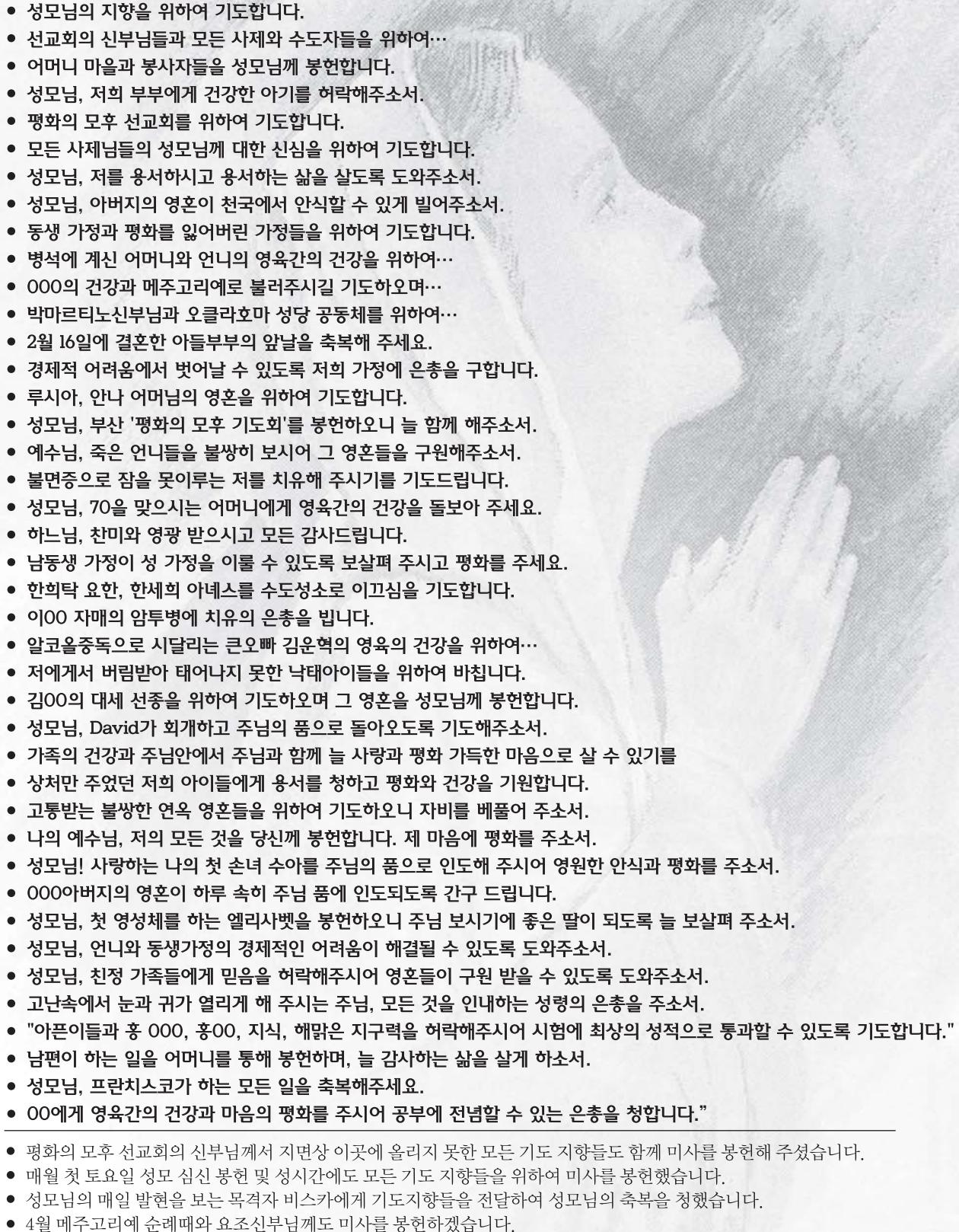
자들이 갈수록 세속화 되어가고 있다"며 "기도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대한 관심을 줄여든 반면 더 많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기경은 이어 '최근 세속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교회 공동체 안의 일부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서 여러 가지 실망스런 모습을 엿볼 수 있다"며 ▲지나친 자유 추구 ▲희박해진 가족 공동체 개념 ▲제의 입기를 꺼려하는 태도 ▲기도의 힘에 대한 평가절하 ▲원활하지 못한 공동체 생활 ▲순명서약의 약화 등을 세속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꼽았다.

추기경은 아울러 "오늘날의 보편교회에 성소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며 '2006년 교황청 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수도회에 소속된 남여 수도자의 수는 전년에 비해 0.6% 줄어들었으며, 관구 및 교구에 소속된 사제의 수도 600명이 늘어났을 뿐'이라고 밝혔다. 추기경은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속세와 단절된 성스러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도자로서 명상적인 삶을 사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바티칸 외신종합】 가톨릭 신문 2008-02-24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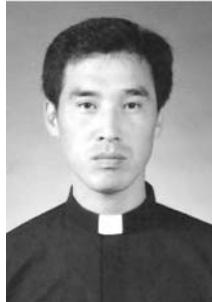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 성모님의 지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선교회의 신부님들과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하여…
  - 어머니 마을과 봉사자들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성모님, 저희 부부에게 건강한 아기를 허락해주소서.
  -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모든 사제님들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저를 용서하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 성모님, 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에서 안식할 수 있게 빌어주소서.
  - 동생 가정과 평화를 잃어버린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병석에 계신 어머니와 언니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000의 건강과 메주고리예로 불러주시길 기도하오며…
  - 박마르티노신부님과 오클라호마 성당 공동체를 위하여…
  - 2월 16일에 결혼한 아들부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세요.
  -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에 은총을 구합니다.
  - 루시아, 안나 어머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부산 '평화의 모후 기도회'를 봉헌하오니 늘 함께 해주세요.
  - 예수님이, 죽은 언니들을 불쌍히 보시어 그 영혼들을 구원해주세요.
  - 불면증으로 잠을 못이루는 저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성모님, 70을 맞으시는 어머니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돌보아 주세요.
  -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시고 모든 감사드립니다.
  - 남동생 가정이 성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평화를 주세요.
  - 한희탁 요한, 한세희 아네스를 수도성소로 이끄심을 기도합니다.
  - 이00 자매의 암투병에 치유의 은총을 빕니다.
  - 알코올중독으로 시달리는 큰오빠 김운혁의 영육의 건강을 위하여…
  - 저에게서 버림받아 태어나지 못한 낙태아이들을 위하여 바칩니다.
  - 김00의 대세 선종을 위하여 기도하오며 그 영혼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성모님, David가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주세요.
  - 가족의 건강과 주님안에서 주님과 함께 늘 사랑과 평화 가득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 상처만 주었던 저희 아이들에게 용서를 청하고 평화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 고통받는 불쌍한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 나의 예수님,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 성모님! 사랑하는 나의 첫 손녀 수아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어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소서.
  - 000아버지의 영혼이 하루 속히 주님 품에 인도되도록 간구 드립니다.
  - 성모님, 첫 영성체를 하는 엘리사벳을 봉헌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좋은 딸이 되도록 늘 보살펴 주소서.
  - 성모님, 언니와 동생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성모님, 친정 가족들에게 믿음을 허락해주시어 영혼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고난속에서 눈과 귀가 열리게 해 주시는 주님, 모든 것을 인내하는 성령의 은총을 주소서.
  - "아픈이들과 홍 000, 홍00, 지식, 해맑은 지구력을 허락해주시어 시험에 최상의 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남편이 하는 일을 어머니를 통해 봉헌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성모님, 프란치스코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주세요.
  - OO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주시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도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4월 매주고리예 순례때와 요조신부님께도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 “성모님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 2007년 10월 25일 메주고리예에서 춘천교구 소속  
김길상 다니엘 신부님과의 인터뷰 –



질 문 : 신부님께서는 언제 사제 성소를 받으셨습니까?

신부님 :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시절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시립복지원에서 학생회 봉사를 할 때 수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사제 성소를 느꼈습니다.

질 문 : 3대 독자 외아들로서 어머니와 집안의 많은 반대들을 이겨나갈 힘을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신부님 : 저는 여동생에게 "내가 죽을 때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을 때 정말 기쁘게 웃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제가 되지 못해서 기쁜 삶을 살 수 없다면, 그때 누가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오빠가 사제가 되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해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희망을 주는 길을 가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질 문 : 혹시 사제생활 중 회의나 위기를 느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신부님 : 89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95년도에 서품을 받고 보좌로 간 첫 본당의 주임신부님께서 3개월 만에 돌아가셔서 바로 본당 주임서리를 맡았습니다. 그 후 첫주임으로 간 곳이 등록된 신자 수 50 명이었고 평일 미사 2 명의 강원도 산골 공소에서 승격된 내면 본당에서는 신자들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평일 미사를 밤 9시에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수도 성소를 원했으나, 외아들로서 어머니를 모시고자 교구 사제가 되었습니다. 솔모르 본당에 오기 전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해야 했을 때, 주교님과의 의견차이로 다시 한 번 수도성소를 생각하게 되었으나 후에 주교님께 제 마음을 말씀드려 서로 이해하게 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질 문 : 저는 2~3년 전 신부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2 년 전, 신부님께서 순례자들과 함께 파티마 순례 후 유럽에서 큰 교통사고를 겪으셨고, 순례자들 중에는 다치거나 생명을 잃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사고가 난 후 한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메주고리예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부님 : 저는 신학교 때부터 성모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제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제 성소에 대하여 특별히 성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순례는 그 때 돌아가신 분들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 첫 미사를 봉헌할 때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순례 중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살아남은 것이 무척 죄송했습니다. 사제로서 신앙인의 완전한 모범이신 성모님의 모든 것을 닮고 싶어서 순례를 떠났는데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원망도 되었지요. 한때는 '성모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민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저의 부족함으로 생각하고 성모님 보시기에 좋은 사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처음 메주고리예에 오셨을 때 어떠셨나요?

신부님 : 보좌신부였을 때, 신자분께서 메주고리예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메주 쑤리 가냐고' 농담했습니다. 그때는 이곳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상한 곳, 가면 안 되는 곳, 주교님이 반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이곳의 첫인상은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척박한 마을로 보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질 문 : 척박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곳이라 느끼신 곳을 또 오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신부님 : 도착한 다음날, 아무 기대 없이 오리엔테이션에 갔습니다. 그때 "메주고리예에서는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대신 여러분들이 이번 순례를 통해 변화된 삶으로 메주고리예의 표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들은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오기 전, 여러 성지의 분위기는 모두가

기적과 표징만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눈에 보이는 표징을 찾지 말고 변화된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라는 말을 들으면서 드디어 메주고리예가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부터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제의 삶을 살아 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메주고리예 본당에서는 미사 전에 묵주기도 환희와 고통의 신비, 성모호칭기도, 성령송가를 매일 봉헌합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무릎을 꿇고 영광송과 평화의 기도를 하고 일정에 따라서 십자가 경배와 성시간, 성체강복, 성물축성, 치유의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시간 동안 하는 전례를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부님 : 우리 본당에서는 첫 번째 목요일에 성시간을 하고 미사 30 분 전에는 묵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톨릭 신앙의 중심인 미사준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주고리예를 왔을 때 성탄과 신년을 보내면서 정말 하느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 무척 감명깊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형식적인 전례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저에게도 미사는 거룩한 것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전례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미사는 이렇게 살아있어 모두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당에 돌아가서 청년단체들과 사목회, 어른들에게 우리도 메주고리예처럼 살아있는 미사를 봉헌하도록 노력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질문 : 목격증인들은 성모님께서 파티마의 메시지가 메주고리예에서 실현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부님 :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메주고리예의 순례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사제인 저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들키도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현이 끝난 파티마와 가라반달, 루르드와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하고 계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질문 : 사제로서 해외 성지 순례를 떠나는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마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님 : 우리는 순례를 하면서 되도록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내가 많은 것을 보고 가야만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침묵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거룩한 성지들을 순례할 때 기도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묵상하고 참된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침묵은 하느님과 내가 나누는 대화이고 만남을 체험하는 여정이기에 순례자들이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입과 눈과 마음으로 침묵하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하느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톨릭 성지순례의 마지막에는 전대사의 은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은총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순례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순례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순례를 한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제로서 이 거룩한 순례를 통해 모든 순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질문 : 신부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메주고리예' 월간지는 한국과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각국에서 많은 신자분께 읽히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신부님 : 우리가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이끌어 주시는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또 우리 생명의 참 주인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동 구속 사업



파티마의 성모 발현 셋째날 (기념일) 203.80.7.13.

내 계획의 실현을 도와 다오,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리고, 나의 양성을 받을 수 있게 너희 자신을 내게 맡겨 다오. 그래야 나의 어머니다운 공동 구속 사업에 너희를 더욱더 결합시킬 수 있다. (물론) 구속자는 예수님 한 분 뿐이시다. 그분 훌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분은 당신의 속량을 받은 모든 이들도 구속 사업에 참여시키고자 하셨다. 당신 사랑의 자비로운 사업이 더욱 강렬하고 놀랍게 빛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구속을 받은 너희도 그분의 구속 사업에 함께 협력할 수 있다. 바로 그분의 '신비체'를 이를 만큼 그분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너희들 안에서, 그분은 (인류 구원을 위해) 갈바리아에서 단 한 번 이루신 (희생 제사의) 열매를 너희 시대에도 거두어들이실 수 있는 것이다. 내 '아들'의 구속 사업에 협력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완전한 모범이다. 사실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분의 구속 사업에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너희가 십자가 아래 서 있는 나를 보면,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실 때 자신의 그 처참한 수난 전체에 얼마나 어머니를 결합시키고자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가 처형대라면, 티없는 내 성심의 애통함은 내 '아들'이 '아버지'께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희생 제물'을 바치신 제대와도 같은 것이다. 나는 '교회의 어머니'이므로 예수께서 나를 교회의 구속 사업의 완성에도 긴밀히 결합시켜 주셨다. 이는 역사를 통해 수행되어 온 사업으로써,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산 제물로 제현하실 때 너희에게 얻어 주신 구원을 만민이 받을 수 있게 그 가능성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에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수가 많

아지면 질수록 그분의 신직 사랑의 결작(인 구원 사업)도 그 만큼 더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어머니로서의 나의 임무는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얻도록 모든 방법으로 돋는 일이다. 그리고 내 아들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사업)에 오늘날에도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협력하는 일이다. 이렇듯 진정한 어머니이며 공동 구속자인 나의 역할은 (장차) 만인에게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일을 나는 이제 너희를 통해 하고자 한다. 내가 너희 삶의 광야로 물러나와, 나의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이 광야에서) 엄마인 내가 너희를 길러내면, 너희의 협력으로 위대한 공동 구속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기도, 완전한 봉헌, 고난, 너희 자신의 희생을 호소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며 '갈바리아'로 오르도록 부드럽게 도와 준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너희 모두를 성부의 마음에 드는 희생 제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침묵 속에서 활동하는 때이다. 너희 삶의 광야에서 날마다 너희를 더욱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써,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다시 사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나의 이 활동이 완수되면, 내가 지금 수행 중인 사랑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전교회가 명확히 알게 되리라. 지금은 '공동 구속'이라는 내 자비의 사업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급히 필요한 시대이다. 지존하신 성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만인이 인정할 날이 오리라. 그러면 나의 큰 힘을 완전히 발휘하여, 내 아들 예수님의 승리가 도처에서 빛나도록 하리라. 그때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

## 은총의 중개자

204. 80. 7.16.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기념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은총의 중개자'이다. '은총'은 바로 너희에게 분여 (分與)되는 하느님의 생명이다. 성부의 품에서 발원(發源)하여 '말씀'에 의해 너희에게 주어지니, 말씀은 당신 자신의 신적 생명을 너희와 나누시려고 내 동정의 태중에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이 때문에 그분은 너희의 몸값으로 당신 자신을 바치셨고, 그렇게 하느님과 온 인류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가 되셨다. 따라서 은총이 성부의 품에서 너희에게 이르려면 반드시 '성자의 성심'을 통해야 하고, 성자는 당신 '사랑의 성령' 안에서 그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신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광선이 창문의 형태와 색채와 전체적 구도(構圖)를 드러내듯이, 하느님의 은총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 의해, 너희에게 이를 수 있으며, 너희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의도(意圖) 및 그분의 형상 자체를 재현한다. 그리하여, 그분 자신의 '위격'과 더욱 닮아가도록 너희를 형성한다. 하느님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형상으로 너희에게 올 수 있을 뿐이다. 이 생명이 너희 안에서 자랄수록 너희는 그만큼 더 그분을 닮게 되어, 참으로 그분의 작은 형제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은총을 통해 성부께서는 너희에게 더욱더 당신 자신을 나누어 주시고, 성자는 너희를 당신과 닮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너희를 변화시키시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의 관계를 맺어 주신다. 그래서 점점 더 힘차고 활동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니, 이는 바로 지존하신 성삼께서 은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안에 당신 거처를 잡으시는 까닭이다. 이러한 은총적 삶 안에는 너희 천상 엄마와의 관계도



포함된다.

나는 참으로 예수님과 너희의 엄마이기에, 내 아들 예수님과 너희 사이에서 중개 활동을 한다. 이는 내 신적 모성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예수님의 엄마인 나는 내 성자께서 너희에게 가실 수 있도록 하느님이 뽑으신 도구이다. 이 첫 중개 행위가 내 동정의 태중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의 엄마인 나는 너희가 나를 통해 예수께 갈 수 있도록 그분이 뽑으신 도구이다. 너희와 내 아들 예수님 사이에서 나는 진정 은총의 중개자이다. 그러므로 성부의 품에서 흘러나오고 성자께서 얻어 내시어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을, 내 작은 아기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내 임무이다. 내 모든 자녀들에게 은총을 분배하되, 각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은총을 나누어 주는 것도 내 임무이니, 엄마는 그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때나 나의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게 자신을 온전히 맡긴 아들들에 대해서만 완전히 할 수 있다. 특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인 너희들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봉헌을 통해 너희 자신을 내게 온전히 맡겼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지름길이요, 꼭 필요한 길이다. 이 길을 따라가기를 거부한다면 너희의 여정동안 길을 잊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1973년부터 1997년 까지 파티마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신경남 스테파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 2008년 2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은총의 시기에 나는 다시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지난 1월 메시지에서처럼 성모님께서는 이번 달 메시지에서도 사순절이 은총의 시기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시기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루카 복음 15장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은총의 시기임을 더욱 깊이 새기기 위해 이 비유를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고 청해서 모두 쟁겨 집을 떠났습니다. 작은 아들은 먼 고장으로 가서 온갖 세속적 즐거움에 빠져서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드디어 돈이 모두 떨어지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심지어 배를 꽂기까지 했으나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작은 아들은 발길을 돌려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든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하인을 불러 잔치를 준비하도록 명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아름답고 감동적이지만 이 비유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인간의 청을 들어주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당신을 멀리하고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인간에 대한 걱정과 연민을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작은 아들이 멀리 있을 때에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던 아버지처럼 하느님은 늘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가 당신께 다시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순절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연민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과 연민 그리고 은총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겠습니까?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 자신이 그동안 어떤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는지 성찰했습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 발길을 돌려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난 26년 8개월 동안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예를 통해 주고 계시는 메시지 가운데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주제는 '회개'입니다. 평화의 모후께서는 우리가 '되찾은 아들의 비유'의 작은 아들처럼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달 메시지에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다시 권고하십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성모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포기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지난 1월 메시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달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에게는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죄를 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여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악과 죄입니다. 풍요로운 현대를 사는 우리를 악과 죄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과 이기주의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

린다....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1986년 4월 17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여전히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영적 생활에는 관심이 없다.... 어린 자녀들아,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너희는 회개할 수 없다." (2002년 1월 25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그 무엇보다도 특히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다시 결심하도록 초대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히 소비주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참된 가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고 산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므로 너희 삶에서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도록 다시 초대한다. 어린 자녀들아, 사탄이 물질적인 것을 통해 너희를 공격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자유와 사랑이신 하느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여라. 어린 자녀들아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여라. 예수님이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시기에, 부활을 통해 꽂피게 된 생명을 선택하도록 초대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회개를 통해, 오늘 너희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96년 3월 25일).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물질적인 것이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은 커녕 오히려 죄만 짓고 불행에 빠졌습니다. 그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임을 깨닫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물질만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르쳐주시기 위해 성모님은 우리에게 단식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단식은 우리를 모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오직 하느님만을 갈망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로마 5: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아들처럼 과거를 청산하고, 죄를 끊어버리며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향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이 충만하게 내립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시는 하느님" (마태 5:45)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되거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당신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아직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초대하십니다.

**비록 그 양이 작을지라도 아직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열렬하게 바치는 기도로 너희의 하루가 염어지기를 바란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종, 민족, 국적, 성별 그리고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만민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아직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아직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처럼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자기 동생을 뜻마땅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죄 중에 있는 동생이 돌아오기를 학수고 대했던 아버지처럼 되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아직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 그 효과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중에 있던 아들 아오스팅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회개를 위해 바치는 기도는 반드시 그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족 가운데 죄에 빠져 있거나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바치는 그 중재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루카 1:37)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양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아주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열렬하게 중재의 기도를 바친다면 그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 많은 부분이 우리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



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비록 그 양이 적을지라도 아직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열렬하게 바치는 기도로 너희의 하루가 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 그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로 우리의 하루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영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도에서 먼저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간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하느님의 그 사랑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제가 바로 돌아온 텔자, 작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물질에 집착하고, 온갖 죄를 지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작은 아들입니다. 이제 저는 저의 모든 죄와 잘못을 고백합니다. 작은 아들처럼 당신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언제나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느님, 이제 발길을 돌려 당신께로 향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먼발치에서 보시고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셨던 것처럼 당신께 온전히 의탁하는 저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십시오. 이제 저는 또 당신의 또 다른 작은 아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요청대로 아직까지 당신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회개하여 당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표징이다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시대에 나는 내 예언자들로 하여금 내 백성에게 천동번개를 휘두르게 했다. 그러나 오늘은 너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내 자비를 보낸다. 나는 인류를 벌하지 않고 치유하고 내 성심 가까이로 데려오고 싶다. (일기 1588)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표징이다. 이 시기가 지나고나면 정의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내 자비의 샘으로 다가오게 하여라. 그들을 위해 흘린 나의 피와 물의 혜택을 입게 하여라 (일기 848). 내가 심판관으로서 오기 전에, 우선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열 것이다. 그러나 내 자비의 문을 통과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정의의 문을 거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일기 1146)"

### 하느님 자비 신심의 핵심

#### 1. 의 탁

우리가 하느님께 대하여 가져야 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단지 완덕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겸손, 인내, 그리고 범죄에 대한 통회도 포함한다. (...) 의탁은 하느님 자비 신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 예수님께서

서는 약속하셨다. "나는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무한한 은총을 베풀고 싶다.(일기 687). 그들에게 큰 의탁으로 이 자비의 바다에 가까이 오게 하여라. 죄인들은 의로움을 얻고 올바른 사람은 선함이 확실해질 것이다. 나의 자비에 신뢰를 두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시간에 하느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일기 1520). 의탁은 이 신심의 핵심 또는 정신일 뿐만 아니라 은총을 얻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말씀하셨다. "자비의 은총은 하나의 그릇, 즉 의탁(신뢰)에 의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더욱더 의탁할수록 더욱더 많은 은총을 얻을 것이다. (...)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을 내가 친히 돌보아주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행복하다. (일기 1273). 내 자비를 청하는 영혼이 실망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한 영혼은 하나도 없다. 내 선함에 그 신뢰를 두는 영혼을 나는 특별히 사랑한다(일기 1541).

#### 2. 자비

모든 인간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이께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에게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자비의 행동을 요구한다.

##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무한한 은총을 베풀고 싶다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보여야 한다. 그것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려 하거나, 스스로 벗어나려 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세 가지 방법을 주겠다.

첫째는 행동, 둘째는 말, 셋째는 기도이다. 이 세 단계 안에 자비의 모든 것이다 담긴다. 그것은 나에 대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이다. 이렇게 함으로 영혼은 내 자비에 영광을 올리며 공경을 드리는 것이다"(일기 742).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도 역시 은총을 얻기 위한 조건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 날에 나의 자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오! 영혼들이 스스로 영원한 보화를 모으는 방법을 안다면 그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비로 나의 심판을 누그러뜨렸기 때문이다" (일기 1317).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상기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흡수하는 사람들이 매일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자비의 행위를 실행하기를 열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 마음은 자비,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라. 이 자비의 바다에서 온 세상에 은총이 흘러 나간다. 네 마음이 내 자비의 영속적인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 네 마음을 통하여 내 자비가 온 세상에 흘러 내리기를 바란다. 네 가까이에 오는 영혼들이 내가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도 뜨겁게 열망하는 내 자비에 대한 신뢰감 없이 떠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라 (일기 1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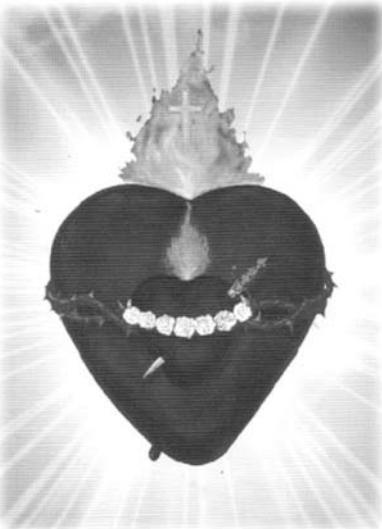
### 하느님의 자비 주일을 준비하며 드리는 9일 기도문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이 9일 동안 나의 자비의 샘으로 영혼들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며, 그들이 고된 생활에서, 특별히 죽을 때에 필요한 모든 은총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날마다 너는 나의 성심에로 다른 영혼들을 데려오고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그러면 나는 모든 영혼들을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겠다. 날마다 너는 나의 쓰라린 수난의 힘에 의지하여 이 영혼들을 위해 나의 아버지께 은총

을 간청하여라."

2008년 3월 21일 성금요일부터 3월 29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까지 9일 동안 매일 해당되는 기도문을 읽고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친다.



첫째 날 : "오늘은 모든 인류를, 특별히 모든 죄인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몰아넣은 큰 슬픔 속의 나를 위로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저희를 동정하시며 저희를 용서하심이 본성이신 예수님, 저희의 죄를 살피지 마시고 당신의 무한히 선하심에 의탁하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저희 모두를 받아 주시며 저희가 주님의 성심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당신을 성부와 성령과 일치시키는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여 당신께 간청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지극히 동정심 많은 예수 성심 안에 싸인 온 인류에게, 특별히 불쌍한 죄인들에게 당신의 자비로우신 눈길을 보내 주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영원히 하느님 자비심의 전능한 힘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의 기도...)

둘째 날 : "오늘은 내게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영혼을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심원한 자비에 잠기게 하여라. 그러면 나의 극심한 수난을 인내하도록 그들은 내게 힘을 준다. 수로를 통하듯이 그들을 통하여 인류 위에 나의 자비심이 흘러가게 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좋은 것은 모두 내어 주시는 예수님, 당신의 구원사업에 봉헌된 이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부어주시어 그들이 하느님의 자비에 합당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써 그들을 보는 모든 이들이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 포도밭에 선택된 이들,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영혼 위에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내 주시며



## 그리스도의 영혼과 신성을 바치오니....

당신 축복의 힘을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을 감싸고 있는 당신 아드님의 성심의 사랑을 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빛을 나누어 주시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한 목소리로 당신의 끝없는 자비를 영원히 찬미 찬송하게 해 주소서. 아멘. (자비의 기도...)

**셋째 날 :** "오늘은 열심하고 충직한 영혼들을 모두 내게로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이 영혼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내게 위로를 주었다. 그들은 쓰라린 비통의 바다 한 가운데서 위로의 물방울이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당신 자비의 보고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에게 당신의 은총을 넘치게 부어 주소서.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저희 모두를 받아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성심을 떠나지 않게 해 주소서. 천상 아버지께 대한 지극히 놀라운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주님의 성심에 의지하여 이 은총을 간청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 아드님의 상속자들에게처럼 충직한 영혼들에게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내주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끊임없는 보호로써 그들을 감싸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천사들의 무리와 성인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를 끊임없이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의 기도...)

**넷째 날 :** "오늘은 나를 믿지 않는 이들과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지극히 동정심 많으신 예수님, 당신은 온 세상의 빛이십니다.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아직도 당신을 믿지 않는 이들과 당신을 모르는 이들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 그들에게 당신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그들도 저희와 함께 당신의 놀라운 자비를 찬양하게 하시며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 아드님을 믿지 않고 있으며 당신을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영혼에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내주시어 그들을 복음의 빛 앞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들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있나이다. 그들도 한없이 너그러우신 당신의 자비를 끝없이 찬양하게 하소서. (자비의 기도...)

**다섯째 날 :** "오늘은 갈라진 형제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나의 쓰라린 수난 중에 그들은 나의 몸과 마음 즉 나의 교회를 잡아 찢었다. 그들이 교회 일치로 돌아올 때 나의 상처들은 치유되고 나의 수난의 고통을 덜어 준다."

지극히 자애로우신 예수님, 선하심 자체이신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자비를 찾는 사람들에게 빛을 거절치 않으시나이다.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갈라진 우리 형제들의 영혼들을 받아 주소서. 당신의 빛



으로 그들을 교회 일치에 이끄시고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어 그들도 한없이 너그러우신 당신의 자비를 찬양하도록 인도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갈라진 우리 형제들에게, 특별히 당신의 축복을 헛되이 하며 자기들의 오류를 완고하게 주장함으로써 당신의 은총을 오용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자비로우신 눈길을 보내 주소서. 그들의 오류를 살피지 마시고 당신 아드님의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아받으신 쓰라린 수난을 보시고 당신 아드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감싸여 있는 그들도 당신의 위대한 자비를 끝없이 찬양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자비의 기도...)

**여섯째 날 :** "오늘은 온순하고 겸손한 영혼들, 그리고 어린이 같은 사람들의 영혼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에 잠기게 하여라. 이 영혼들은 내 마음을 아주 닮았다. 그들은 내가 나의 비통한 고민 중에 빠졌을 때 나를 굳세게 해 주었다. 나는 그들을 나의 제단에서 밤새워 기도하는 지상의 천사들처럼 보았다. 나는 그들 위에 은총의 폭포를 쏟아주겠다. 겸손한 영혼만이 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겸손한 영혼들을 내가 신임함으로써 돌보아 주겠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께서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온순하고 겸손한 영혼들과 어린이와 같은 단순한 영혼들을 모두 받아 주소서.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들로서 아버지께 늘 기쁨을 드리는 이들이며, 하느님의 옥좌 앞의 향기로운 꽃다발로서 하느님께서는 친히 그 향기를 즐기시나이다. 오, 예수님, 그 영혼들은 (...)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감싸여 있는 온순한 영혼들, 겸손한 영혼들, 어린이 같은 영혼들 위에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내 주소서.

그들은 당신 아드님과 매우 닮은 영혼들로서 그들의 향기가 이 지상에서 당신 어좌에까지 올라가나이다. 자비와 온갖 선의 아버지, 이들을 보호하신 사랑과 그들을 비추어 주신 빛에 의지하여 간청하오니 모든 영혼들이 당신의 자비를 끝없이 노래하도록 온 세상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자비의 기도...)

**일곱째 날 :** "오늘은 특별히 내 자비심을 공경하고 찬양하는 영혼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에 잠기게 하여라. 이들은 나의 수난을 대단히 애통해하며 나의 마음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 이들은 나의 동정심 많은 성심의 모상들이다. 이들은 저 세상에서 특별한 빛으로 밝게 빛날 것이다. 아무도 지옥 불에 가지 않겠고 나는 특별히 그들 각자를 죽을 때에 보호하겠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당신의 성심은 사랑 자체이시니 당신 자비의 위대성을 공경하고 특별히 들어 높이는 자들의 영혼을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받아 주소서. 그들이야말로 바로 주님 친히 발휘하시는 능력으로 힘있는 자들입니다. 온갖 고난과 반대 세력 가운데서도 그들은 당신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여 전진함으로써 당신과 일치하였나이다. 오, 예수님, 그들은 자신들의 어깨에 온 인류를 짊어졌습니다. 그들은 엄하게 심판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의 자비가 그들을 자애롭게 감싸 주실 것이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께서 더없이 관대하게 베풀어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공경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감싸여 있는 영혼들 위에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내 주소서. 그들은 살아 있는 복음입니다. 그들의 손은 자비의 행위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기쁨에 넘쳐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 자비의 찬가를 노래하나이다. 오, 하느님, 간청하오니 당신께 의탁하는 그들의 희망과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자비를 보여 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살아 있을 동안뿐 아니라 특별히 죽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 자비를 공경하는 영혼들을 예수님 친히 당신 영광처럼 보호해 주소서. 아멘.

(자비의 기도...)

**여덟째 날:** "오늘은 연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심연에 잠기게 하여라. 그

리하여 나의 성혈의 폭포가 그들을 태우는 불꽃을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라. 그들도 모두 나에게는 매우 사랑스러운 영혼들이다. 그들은 나의 정의에 보상을 하고 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너의 힘에 달렸다. 내 교회의 보고에서 모든 은사를 끌어내어 그들에게 주어라. 오, 만일 네가 그들이 받는 고통을 안다면, 그들을 위해 영신적 자선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나의 정의에 대한 그들의 빚을 갚을 것이다."

지극히 자애로우신 예수님, 당신은 친히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아직 당신 정의에 보상을 드려야만 하는 영혼들을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성심으로부터 솟아 나오는 성혈과 물줄기가 연옥의 불을 끄게 하시고 또한 거기서 당신 자비의 능력이 찬양받게 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감싸여 있으나 연옥에서 단련 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여 주소서. 당신 아드님 예수님의 애통스런 수난과 그 거룩하신 영혼이 당한 온갖 고통에 의지하여 당신께 간구합니다. 당신의 엄한 정의 아래 묶여 있는 영혼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 주소서. 저희는 당신의 선하심과 연민에 아무런 한계도 없음을 믿고 있사오니,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아멘. (자비의 기도)

아홉째 날 : "오늘은 미지근한 영혼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심연에 잠기게 하여라. 이 영혼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이 미지근한 영혼들 때문에 올리브 동산에서 나의 영혼은 너무나 무서운 혐오감을 받아야 했다. 그들이야말로 내가 "아버지, 당신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소서."하고 외치게 된 이유였다. 그들을 위한 마지막 구원의 희망은 나의 자비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지극히 동정심 많은 예수님, 당신은 동정심 자체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으로 미지근한 영혼들을 인도합니다. 당신의 순수한 사랑의 불 속에서, 시체와 같이 당신을 그렇게도 깊은 혐오감으로 몰아넣은 이 나태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불붙게 하소서. 오, 지극히 동정심 많은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넘어설 것은 아무 것도 없사오니, 당신 자비의 전능을 드러내시어

열절하신 당신 사랑 안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성스러운 사랑의 선물을 그들에게 내려 주소서.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감싸여 있으면서도 미지근한 그 영혼들에게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여 주소서. 자비의 아버지, 당신 아드님의 혹독한 수난과 세 시간 동안이나 매달리신 십자가의 고통에 의지하여 간청하오니, 그들도 당신 자비의 심연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의 기도...)

### 목주로 드리는 하느님 자비의 기도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1935년 빌니우스에서 목주로 드리는 하느님 자비의 기도를 받아쓰게 하셨다. (...)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고 '영혼과 신성'을 바치며 그분의 희생과 우리 자신을 결합시킨다. (...) 이 기도문 중 '우리'는 이 기도를 바칠 때의 지향, 지향을 두고 기도해주는 사람을 기 억하는 것이며 '온 세상'은 모든 사람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가리킨다.

###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이 기도를 바치며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베풀어 주는 것이 나는 기쁘다"(일기 1541). '만일 그것이 내 뜻에 부합한다면'(일기 1731) 그 특별한 은총은 임종의 시간에도 부가되어 있는데 그것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죽음의 은총이다. 이 은총은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죽어갈 때 이 기도를 바쳐줄 그의 옆에 있는 사람도 동시에 얻는다.

###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제들은 구원의 마지막 희망으로써 죄인들에게 이 기도를 권하게 하여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이 기도를 한 번이라도 바친다면 나의 무한한 자비를 얻을 것이다" (일기 687). 예수님께서는 생애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완전한 의탁의 태도와 겸손, 진실함 그리고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함께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다.



# 모든 은총의 중재자, 공동 구속자, 보호자이신 성모 마리아

## 마리아에 관한 다섯 번째 교의, '공동 구속자' 반포 요청

2008년 2월 11일, 다섯 분의 추기경들은 전 세계 고위 성직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에게 마리아에 관한 다섯 번째 교의를 반포하도록 청원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 다섯 번째 교의 반포를 통해 마리아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완전한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에 발표된 이 편지에는 성모님이 '모든 인류의 영적 어머니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공동 구속자이시고,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며, 모든 인류의 보호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보호자이시라는 것을 교황께서 선포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도 들어 있습니다.

이 편지에 서명하신 분들은 지난 2005년 파티마에서 열린 성모님의 공동 구속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을 함께 주관한 여섯 추기경 가운데 다섯 분으로 그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도의 란치 대주교인 추기경 텔래스포 토텝 (Telesphore Toppo), 은퇴하신 푸에르토 리코 샌후안 대주교 추기경 루이스 애폰티 말티네즈 (Luis Aponte Martinez), 인도의 어내이쿨럼 앵거말리 대주교인 추기경 발키 비타야틸 (Varkey Vithayathil), 필리핀 세부 대주교인 추기경 리카도

바이달 (Riccardo Vidal) 그리고 은퇴하신 맥시코 시티 대주교 추기경 어네스토 코리피오 이 아후마다 (Ernesto Corripio y Ahumada).

2005년 회의를 함께 주관했던 여섯 번째 추기경인 에두어드 개그넌 추기경님은 지난 8월에 사망하셨으며 이분은 1974년부터 1990년 사임하실 때까지 교황청 가정평의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공동 후원을 한 다섯 추기경의 비서들은 지난 2005년에 작성되어 2006년에 텔리스포어 추기경에 의해 교황에게 정식으로 전달된 "votum" 혹은 청원이라는 라틴말 원본과 번역판이 포함된 편지의 영어판을 발표했습니다.

이 청원문에는 "우리는 구속자의 어머니이며, 구원사업에 독특하게 협력하신 그분의 업적뿐 아니라 인류가족 전체를 위해 중재하시고 은총을 나누어주시는 그분의 계속되는 역할에 대한 교회의 지속적인 가르침에 대해 엄숙히 그리고 명확히 설명을 해야하는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믿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 교회 일치 운동

교회 일치 운동에 대해 지적하면서 청원문은 계속 이어

집니다. "천주교회가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역할과, 비록 두 번째이며 의존적인 인간으로서 참가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위대한 인간 구원 사업에 있어 담당하신 독특한 역할 사이의 차이에 대한 교리의 참된 명확성에 대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설명을 다른 종교적 전통을 믿는 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편지는 또한 이와 같은 움직임은 "로마 교회와 연계가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 교리의 명확성에 대해 알려주는 최고의 표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언론에 공개한 성명서에서 공동 후원을 한 추기경들은 교회 일치 운동에 대한 같은 관심을 재차 언급하면서 마리아에 관한 다섯 번째 교의가 "다른 종교적 전통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마리아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완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또한 "이와 같은 시작은 우리 세대의 구원

에 있어서 마리아님의 역할에 대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 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다섯 번째 성모 마리아 교의가 결정되어 선포되는 것은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의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동 후원자 중의 한 분이신 아폰티 마르띠네즈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우리 각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지상의 자녀들과의 관계, 공동 구속자, 모든 은총의 중재자, 그리고 변호자로서의 그분의 역할에 대하여 교황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셔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성모님을 모든 인류의 영적 어머니라고 엄숙히 선포하는 것은 그분의 호칭들을 완전하고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회의 새로운 복음화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적 전구를 가져다주고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Zenit.org에서 발췌)

### "사랑하는 자녀들아!

특별히 이 사순시기에 나는, 하느님의 선하심에 응답하라고 너희에게 애원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택하시어 나를 너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이다.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내 아들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에 대한 속죄의 희생제물로 바쳐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너희 삶의 의미가 되시고, 너희가 삶으로써 내 아드님의 천상적 사랑에 봉사하기 바란다.

나의 자녀들아, 고맙다."

2008년 3월 2일,  
미리야나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





## 성모님의 발현지와 메시지 (1) 원죄없이 임태되신모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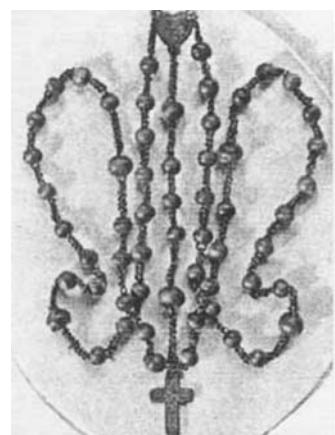
### 평화와 치유의 마을 루르드

루르드는 프랑스 남서부 북쪽 산기슭에 위치한 소도시로 150년 전인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곳이다. 베르나데트는 루르드에 발현한 성모 마리아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머리에 후광이 빛나고 흰 옷에 하얀 베일과 파란색 허리띠를 두르고, 두 손은 가지런히 합장을 한 채 목주를 오른 팔에 늘어뜨리고, 맨 발 위에 노란 장미가 있었다고 전한다. 발현 동굴 바로 위에는 성모님께 봉헌된 웅장한 대성당이 있다. 곁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성당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로사리오 대성당', '동굴 성당', '원죄없이 임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성당'과 1958년 3월 25일 루르드 성모 발현 100주년을 기념하여 봉헌된 '성 비오 10세 대성당'이 있다.

### 베르나데트 수비루

베르나데트는 하루 양식도 걱정을 해야 하는 가난한 집의 장녀로 학교 교육은 물론 교리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랐

다. 아버지 수비루는 운영하던 방앗간의 빚으로 파산했을 뿐 아니라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얼마 후 무죄로 풀려났으나 감옥에서의 심한 고생으로 한쪽 눈을 실명하고야 말았다. 어머니 루이즈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몸이 약했던 베르나데트를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며 추운 겨울날 인근 농가의 가정부로 보냈다. 그러나 7살의 어린 나이로 살을 에는 듯한 추위와 고된 가정부 생활을 견디지 못한 베르나데트는 재발한 천식으로 몸까지 쇠약해져서 석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들의 딱



한 처지를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죄수들조차 살 곳이 못 된다고 폐쇄한 '까쇼'라고 불리는 감옥을 가족들에게 내어 주었다. 비록 춥고 배고픈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어린 베르나데트와 가족들은 함께 모여 살게 된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저녁이면 좁은 방에 온 가족이 모여 묵주기도를 바치며 행복하게 살았다.

###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

QUE SOY ERA IMMACULADA COUNCEPCIOUN'



어느 날 집에 땔감이 없는 것을 알게 된 베르나데트는 나무를 구하러 갔다가 우연히 마사비엘 동굴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보게 됐다. 베르나데트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라고 물어보았다. 고개를 옆으로 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러 보시던 성모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는 원죄없는 잉태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14세가 되도록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고 교리 문답조차

외우지 못하던 베르나데트는 성모님의 그 말씀이 3년 전 교황 비오 9세가 선언한 무염시태 교리를 확인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 성모님이 주신 발현 동굴과 기적수

그 후 18회 동안 베르나데트에게 발현하신 성모님은 "이 세상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어라.", "이 샘물을 마시고 몸을 씻어라.", "이곳에 성당을 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하여라." 등의 메시지와 함께 발현 동굴에 루르드의 기적수로 불리우는 샘터를 주셨다. 성모님은 2월 18일 목요일 세 번째 발현에서 베르



나데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앞으로 2주 동안 매일 이곳에 오기를 바란다.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의 행복을 약속하진 못하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단다." 마사비엘 동굴은 매년 루르드를 찾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간절한 기도를 봉헌하는 곳이다. 또한 기적수로 알려진 이곳의 샘물을 마시고 침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순례 일정 중 하나이다. 1858년 2월 25일 이 동굴에서 아홉 번째 발현하신 성모님은 베르나데트에게 바닥을 파서 그곳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라고 하셨다. 손으로 땅을 파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베르나데트는 그 후에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무릎으로 동굴을 기어가는 보속을 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른 새벽 동굴 앞에서 침묵 중에 무릎을 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례자들은 영혼의 새로운 양식을 얻어 성모님을 더욱 공경하게 되며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하게 된다. 모든 것을 성모님의 도우심에 의탁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순례자들의 모습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한 모습을 마음과 가슴으로 느끼게 해준다. 동굴 앞에는 순례자들이 간절한 지향을 담아 성모님께 봉헌한 초가 24시간 끊임없이 불을 밝히고 있다.

### 발현 첫날 성모님과 함께 드린 로사리오 기도

베르나데트는 성모님이 발현하신 첫날 함께 있었던 친구 에스프라드를 통하여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재의 수요일 전 주 목요일(1858년 2월 11일)의 날씨는 무척 추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여동생 뜨와네뜨와 나는 집에 더는 땔나무가 없다며 걱정을 하시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려고 강가에 있는 마른 나뭇가지를 주우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망설이셨지만 남동생을 찾으러 온 이웃 친구 잔느가 함께 가겠다

##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의 행복을 약속하진 못하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단다."



기적수를 마시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고 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나뭇가지들이 종종 발견되던 공동묘지로 갔지만 거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우리는 산길을 따라 메라스에 도착해서 사비 방앗간 옆에 있는 농지로 들어갔습니다. 마사비엘 동굴 맞은 편인 그 농지의 끝에 도착한 우리는 방앗간 개울 앞에 멈추어야 했습니다. 개울가의 물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에 평소에도 유난히 몸이 약했던 나는 고질적인 천식이 재발할까봐 겁이 나서 잔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잔느는 "싫어! 그 자리에서 기다려." 하고는 동굴 밑에서 나무 조각 몇 개를 집어들고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나는 개울을 건너기 위해 신발을 벗으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폭풍이 부는 듯한 거센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주위를 살피며 개울 건너편에 있는 동굴 쪽을 바라보니 마치 센 바람이 부는 듯 동굴 입구의 덤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나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동굴 속에서 황금빛 구름이 이는 듯 하더니 곧이어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부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소 띤 얼굴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는 그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마치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몇 번이나 눈을 깜박거리며 보았지만 흰 옷을 입고 허리에서 걸은 아래로 흘러내리는 푸른색 띠를 매고 있는 그 부인은 분명히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머리에 쓴 흰 면사포 안으로 허리 뒤까지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이 보였고 맨발을 덮고 있는 걸 웃 사이로 노란 장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오른 팔에 노란 장밋빛의 아름다운 금색 고리로 연결된 하얀 로사리오가 보였습니다. 내가 로사리오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으려 했으나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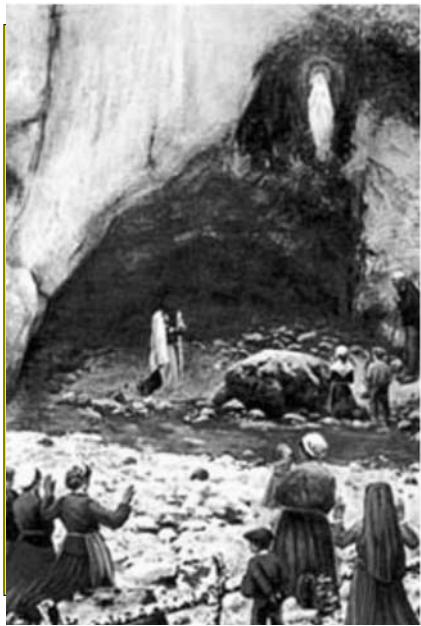
부인이 성호를 그은 후에야 움직여졌습니다. 기도하는 나를 미소 띤 얼굴로 조용히 바라보던 그 부인은 영광송을 할 때만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로사리오 기도를 끝내자 그 부인은 금빛 구름에 싸여 동굴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동굴로 돌아온 잔느와 여동생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나를 쳐다보며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동굴 안에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그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동굴에서 본 아름다운 부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동굴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부인이 몹시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네가 본 것은 환상일 것이다.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 말고 이제 마사비엘 동굴에는 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름다운 그 부인의 인자한 모습과 미소가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환상이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은 동굴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그 부인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 나는 더는 잠을 수가 없어서 동굴로 가게 해달라고 어머니께 간청했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반대하던 어머니도 간곡하게 애원하는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할 수 없이 잔느와 마리와 같이 가는 것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동굴로 향하는 우리는 어른들의 염려처럼 악마의 소행이라면 성수를 뿌려서 막아낼 작정으로 성수가 담긴 작은 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일 먼저 동굴 앞에 도착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려던 나는 동굴 안에서 며칠 전과 같은 금빛 구름을 보고 "그 부인이 오셨어!"라고 소리쳤습니다. 동굴 주변을 살펴본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며 "그 부인에게 이 성수를 뿌려 봐!"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내가 성수를 뿌리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루르드성당 언덕위 있는 십자가의 길

## 탈혼 상태에 빠진 베르나데트



그날 베르나데트와 함께 있던 친구는 무아경에 빠져서 한곳만 계속 응시하고 있는 베르나데트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였다고 전했다. 이 날 늦게 도착한 잔느가 친구들을 놀려 주려고 동굴 위에서 돌멩이를 굴린 작은 사건이 후에 발현 현상을 믿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다른 친구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면서 베르나데트에게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녀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울면서 소리치는 친구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사비 방앗간의 니콜로 아주머니와 그 여동생이 달려왔다. 이미 소문을 들은 두 사람은 특별한 일이 생겼음을 알고 베르나데트를 움직여 보고 손으로 눈을 만져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니콜로 부인은 다시 방앗간으로 달려가서 28살의 아들 안토니를 불러왔다. 아이들이 장난하는 줄 알고 달려온 안토니는 동굴 앞에서 무릎을 끊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베르나데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깜짝 놀랐다.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베르나데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방앗간으로 옮기는 동안에도 탈혼 상태에 빠져있던 베르나데트는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베르나데트에게 니콜로 부부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베르나데트는 아름다운 그 부인과 함께 로사리오 기도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베르나데트는 동굴 앞에서 로사리오 기도를 할 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그 부인은 영광송을 할 때만 같이 했으며 기도가 끝나자 다시 금빛 구름에 싸여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동굴 안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딸이 죽은 줄 알고 마구 울면서 정신없이 달려온 어머니에게 베르나데트가 동굴 앞에서 본 것을 말하자 어머니는 몹시 화를 냈다. "넌 우리 가족을 이 동네의 웃음거리로 만드

는구나. 그래, 네가 본 그 부인이 너에게 무슨 큰 은총이나 준다더냐? 이런 것들은 너나 다 가져라!" 하고 소리치면서 베르나데트를 때리기 시작했다. 니콜로 부인이 엉엉 우는 그녀를 감싸 안으면서 말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 딸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난 동굴에서 보았던 이 아이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온 천사를 자식으로 데리고 있는 것이에요." 베르나데트의 어머니는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가난으로 자식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는 것에 늘 한이 맷혀 있었다. 더구나 늘 골골하던 어린 딸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좌절감과 서글픈 감정이 북받쳐서 엉엉 울고만 있었다.

### 불쌍한 죄인인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베르나데트 수녀의 삶

베르나데트는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었지만 성모님이 약속하신 행복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지방의 돈 많은 부인이 성모님의 발현에 대하여 많은 호기심을 갖고 베르나데트의 집을 찾아왔다. 이것저것 물어보던 그 부인은 베르나데트가 성모님이 발현하셨을 때 함께 기도한 나무 묵주를 손에 든 것을 보고 탐이 났다. 그 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로 만들어진 비싼 보석 묵주를 베르나데트에게 주며 말했다. "이 묵주는 비싼 보석으로 만든 것이라. 이것을 너에게 줄 터이니 그 나무 묵주와 바꾸자꾸나." 그러나 베르나데트는 "아니요. 저에게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던 이 묵주가 더 소중해요. 아무리 비싼 보석 묵주를 주셔도 이 묵주와는 바꾸지 않겠어요." 하고



베르나데트 성녀의 생가

말했다. 이 부인은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떠나갔다. 1866년 루르드를 떠나 수녀원으로 들어간 베르나데트는 위낙 병약한 몸이라 자주 천식과 폐결핵을 앓으면서 심한 고통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성모님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다. 수녀원의 원장수녀는 베르나데트 수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모 마리아를 보았단 말이냐?"라고 심한 모욕을 주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책을 했고 심지어 다른 수녀들에게 그녀와 어울리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동료 수녀들의 시기심과 모함 때문에 몹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베르나데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던 성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것을 보속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였다. 1879년 4월 16일 베르나데트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거룩하신 마리아여, 불쌍한 죄인인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마지막 짧은 기도를 바치면서 35세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성모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바티칸은 1933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임태된 마리아 축일에 베르나데트수녀를 성녀 품에 올렸다.

### 성녀 베르나데트의 감사기도문

부모님이 가난하셨던 것, 집에서는 무엇 하나 잘 풀려나 가지 않았던 것, 제분소가 망한 것, 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양떼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 항상 피곤에 젖어 있었던 것을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검사나 경찰이나 현병, 폐이나르 신부의 사나운 말을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성모 마리아님! 당신이 나타나신 날도 나타나시지 않은 날도 천국에 가지 않는 한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뺨을 맞거나 조소와 모욕을 받은 것,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 사람들의 일, 나에게 부정한 의심을 하고 내가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의심한 사람들의 일도 성모 마리아님! 감사드립니다. 바른 철자법을 아무리 해도 외울 수 없었던 것, 기억력이 나쁜 것,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나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를 선택하셨을 테니까요. 엄마가 멀리서 세상을 뜨신 것, 아버지가 나를 귀여운 딸 베르나데트로서 안아 주시는 대신 '마리 베르나데트 수녀님'이라고 불렸을 때의 나의 마음 아팠음을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제 마음을, 또 그 마음을 고통으로 가득 채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요셉피나 원장님의 저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년이라고 말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수도 원장님의 폭언, 거리낌없는 말, 불공평한 처사나 비웃음, 굴욕의 빵 등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 여자와 사귀지 마시오."라고 마리 데레사 원장님의 모두에게 말할 정도로 제가 그런 인간임에 감사드립니다. 결점을 비난받을 특권을 가진 것, 다른 수녀로부터 "나는 베르나데트가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유로 마구간에 넣어졌던 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여자가 바로 그 베르나데트인가?"라고 말할 정도로 보잘것없고 빈약한 나임과 마치 희귀한 동물처럼 모두에게 보여지는 인간임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주신 이 불쌍한 썩어가는 육체, 불로 태우는 듯한 아픔을 주는 병, 흐늘흐늘한 뼈, 땀과 고열과 격심한 아픔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이 영혼, 마음 속의 마를 대로 다 마른 사막, 하느님의 밤과 벼락, 침묵과 천둥,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저의 눈앞에 나타나실 때도 나타나시지 않을 때도 당신께서 존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Fonti Vive, Caravate, Sept. 1960)



수녀원에서의 베르나데트 성녀



## 하느님의 몽당연필

# 예수님은 나의 생명

캘카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

나는 주님을 항상 내 눈앞에 모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내 오른편에 계시기에 나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내가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께 내 자신을 무조건 내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여정이 얼마나 먼 길인지를 따져서는 안됩니다. 마치 내가 표류하는 배와 같다느 느낌이 들더라도, 나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하는 일이 어렵게 여겨질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에서라도 우리가 마음 쓸 것은 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일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이룬다는 큰 일에 촛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작은 일은 어쨌든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은 큰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난쟁이 안에 계시든 거인 안에 계시든, 그분은 똑같은 주님이 아니신가요?" 하고 말했습니다. 내적 생활을 참되게 하는 사람은 활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빛이 나고 어떤 일이라도 끝까지 다 잘해냅니다. 이 사회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남의 집에서 일하는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도와 드리는 아들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온전히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라야 진정한 동반자가 됩니다. 이들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사랑을 나누고, 고통이 있는 곳에서는 고통을 나누는 동반자들입니다.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생명도, 피도, 모두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맡깁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랑에 찬 마음의 화로에서 막 구워낸 '맛있는 음식'과도 같아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물 한잔을 주는 사람에게도 깊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이야말로 하느님을 소유하고 이 땅에 하느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참된 방법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랑은 타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타다가 꺼진 불꽃이 아무 쓸모가 없듯이, 사랑이 없는 사회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또 거기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어, 좀 더 풍요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살이의 실패들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겪손하고 인내롭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매일 겪는 고통과 갈등들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주님을 더욱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믿어 인내롭고도 용감하게 그 고통과 갈등에 맞서게 하소서."

"예수님은 나의 하느님 나의 생명  
나의 유일한 사랑  
내 모든 것 중의 모든 것  
나의 재산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 성모님께서 성당에서 발현하신대요!

사브리나고비치 (남기옥 마르타 역)

질문 : 성모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셨다니요!

요조 신부 :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요? 마음으로도 들었고 귀로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소리'였고, 누구든지 그 순간 저와 함께 있었다면 귀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다. 내가 그 목 중앙문을 열었어서 달려오면 "신부님,

저와 함께 있었다면 귀로 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 성당의 을 때 아이들이 왼쪽 서 소리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이 저 희를 잡으려고 뒤쫓아 오고 있어요!" 저는 어린아이들이 절박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들은 그 음성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사제관 문을 열고, 아이들을 제 방에 밀어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조용히 해야 한다." 열쇠로 문을 잠그고 다시 뜰로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언덕으로 올라가 성당은

텅 비어 버렸습니다. 아침에는 심지어 즈링코 신부님까지 산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두 번이나 청했습니다. 저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가보십시오. 하지만 프란치스꼬회 수도복은 입고 가지 마십시오." 제가 마당에서 언덕 위에 가득 찬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경찰들이 뛰어 왔습니다. 손에는 기관총을 들고 앞뒤로 달려오던 그 중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아이들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들은 다음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이들이 도망쳤다고 믿었던지, 마을 쪽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사제관에 남아 있었고, 그 시간에 성모님의 발현이 시작되었습니다. 발현이 끝난 뒤, 아이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오늘 성당에서 발현하실 터이니 모두 모여서 묵주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뭐, 성당이라구? 언덕에서 발현하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거냐?" 가장 나이가 어린 야곱이 말했습니다. "신부님, 왜 그런것을 저희에게 물으시나요? 단지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했을 뿐 그 이상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분이 성당에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어린 야곱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단순했으며, 천진난만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왜 묻고 있는지 오히려 제게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성당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본당신자 여러분,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정녀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십니다!" 1981년 7월5일 그날부터 그 유명한 메주고리예 본당의 저녁 전례가 시작된 것입니다.

질문 : 성모님 발현에 참여해보셨습니까?

요조 신부 : 단 한 번도 발현에 참석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강제로 언덕으로 데려갈수도 없었습니다. 자유의지와 이성적인 판단없이 호기심에 끌리는 것이 싫었고, 특히 본당 사제로서 이런 사건에 객관적인 입장



이 필요했으며, 어떤 표징들을 알아본답시고 이리저리 뛰어다녀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 성당 안에서 목소리를 들으신 날부터 믿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요조 신부 : 그때부터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행복했고,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용감한 증거자들이었습니다. 제게는 이것만으로도 하느님께서 주신 표징으로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질문 : 주교님도 이 사건을 지지하고 계셨습니까?

요조 신부 : 그렇습니다, 거대한 용(龍)! 보호하는 용 같았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주교님은 발현사건의 진실성을 믿으셨고, 강론시간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교님은 교구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발현에 대한 진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대변하고 있던 주교님이 자신이 한 모든 말들을 바꾸다니!

질문 : 주교님이 어떻게 말을 바꾸셨습니까?

요조 신부 : 메주고리예 본당에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저녁 미사 전에 묵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공산당의 비밀경찰들은 말마다 엄청난 군중들이 메주고리예를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지역의 모든 경찰들이 다른 주에서 온 경찰로 대치되고 경찰견, 헬리콥터, 군대까지 진입했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이 사실임을 증언하자 정부가 언론을 이용해 악선전을 하고, 저는 공산당들의 표적이 되어 언론의 첫 면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람들에게 전쟁을 조장하고 타종교인들과 타국인들을 살해하도록 종용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중상모략을 일삼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산정부 입장에서 볼 때 제가 혁명을 주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질문 :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우셨겠어요?

요조 신부 :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제 자신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동정 마리아께서 제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전하기 위하여 설교하며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도 공산당원들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총동원해서 저를 포함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메주고리예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밤과 낮을 구별 없이 성당과 고해소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려고 찾아와서 성당은 늘 사람들로 꽉 차 있으니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100 번 이상 정말 끝이 없는 묵주기도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모여서 묵주기도를 하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성체를 모시면서 참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세례를 간신했습니다. 사제가 "사탄을 끊어버립니까?"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끊어버립니다!"하고 "하느님을 믿습니까?"라고 물으면 "예, 믿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발현증인들은 성모님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성당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도 성모님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M



발현초기 성모님을 본 6명의 아이들



##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흡숭하나이다,

|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지음

| 신경남 스테파노 옮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예수님, 당신만이 홀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이시기에 당신을 흡숭하나이다! 예수님, 당신께서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으니 당신을 믿나이다!

예수님, (...)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 저를 사랑해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저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으니 감사드리나이다. (...)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제 마음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 저의 사랑은 매우 미약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소서.

-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향한 저의 사랑을 온전하게 해주소서.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한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제가 저의 이웃을 저의 몸처럼 사랑하도록 초대하십니다. (...)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있는 그대로의 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들을 무시했으며, (...) 저의 삶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제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 의심을 품곤했던 저를 당신의 사랑, 정의 그리고 자비로 용서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당신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성령께서는 제 생애의 모든 부정적인 체험들로부터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 저의 삶은 기쁨으로 넘치고, 매일 겪는 어려움들에 사랑과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치유해주소서!

- 예수님이, 제가 당신의 마음으로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소서! (현재와 미래의 십자가들과 더불어 모든 시련, 문제들을 예수님께 봉헌하고 감사드린다.)

예수님, 당신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저를 초대해주시니 당신을 흡숭하고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 당신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면 저의 모든 이기심, 교만, 시기 그리고 질투가 깨끗이 없어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사랑 부족으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상처들을 고쳐주십시오. (...)

(이웃과의 관계를 성찰하고, 용서하고 문제가 있다면 특별히 그들을 위해 기도를 바친다.)

-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 제 이웃을 향한 저의 사랑을 치유해 주소서! (침묵 중에...)

예수님. (...) 당신을 십자가형에 처한 원수들을 사랑하셨으니 감사드리나이다. 당신께서 제가 저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저를 초대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고: 루카 6:27-29, 32)

예수님, (...) 저는 항상 악을 악으로 갚고, 미워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저주한 사람을 축복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들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조배를 드리면서 저의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일을 성찰하고 예수님께 봉헌하면서 사랑의 선물을 주시도록 계속 기도한다.)

예수님, (...) 당신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와 죽음을 받아들이셨지만 당신의 마음은 결코 슬픔에 의해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처참한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병자,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 병든 자녀를 둔 부모들, 고통 중에 신앙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 하느님, 왜 접니까?" 하고 끊임없이 묻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성령께서 그들이 찾고 있는 답을 주시도록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불신, 공포 그리고 비통함을 몰아내주소서. 다시 한 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받은 사랑을 치유해주소서.

- 예수님, 고통으로 숨 막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사랑을 치유해주소서. (침묵 중에…)

예수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들 자신, 가정 그리고 나라에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미운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알코올과 마약을 하는 사람,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과 범죄자가 된 사람들을 봉헌합니다. 예수님, 폭력의 영에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파괴시키는 사람 그리고 다른 이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깨우쳐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죄로 인해 생긴 모든 고통이 당신의 사랑을 통하여 저희의 선의과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변화되게 하여주소서.

-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파괴시키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사랑을 치유해 주소서!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봉헌한다.)

예수님, (...) 당신께서는 저희 모두를 위해 사랑으로 고난을 겪으셨고,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 당신의 죽음은 저희의 삶과 죽음, 병자와 건강한 사람, 젊은이와 노인들에게 의미를 주셨습니다. (...) 예수님, 자신들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이들을 도움으로서 오는 참된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삶은 선물이고, 가장 아름다운 교훈은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주소서. (...) 그들의 마음에 평화와 사랑이 다시 찾아들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이 길이 되게 해주소서!

- 예수님, (...) 삶의 의미를 불신하는 이들의 사랑을 온전하게 해주소서. (침묵 중에…)

예수님, (...) 전쟁과 테러, 폭력과 불의 그리고 속임수의 희생물이 된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주소서. 사랑받지 못하고 거부당했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이 사랑과 연민 가득한 당신의 눈빛을 만나게 해주소서. 우정 어린 손길과 도움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손길을 받아들이게 해주소서. 특별히 제가 가는 곳마다 당신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화해주시고, 중오와 폭력을 벗어던지게 하시며 저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세계의 모든 상황을 봉헌하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결심을 한다.)

축복 기도: 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예수님,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저희의 마음이 치유되고, 평화와 사랑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의 상처들을 어루만져주시고, 저희들 각자의 마음에, 특별히 고독을 느끼고 모두에게 잊혀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소서. 당신의 사랑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분열과 증오 그리고 고독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내게 하소서. 예수님, 한 말씀만 하시면 저희의 사랑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 월례 미사 및 성시간 안내

매주고리예 음악과 함께하는 은총과 치유의 시간에 초대합니다.

### 1) 성시간

**일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저녁 8시 (7시 미사 후)**

장소: 서울 양천구 목 3동 626-15 목 3동 성당 02-2644-6633

3월은 '성 목요일' 전례로 인해 19일 (수)에 있습니다.

### 2)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 월례 미사 및 성시간

**일시: 매월 세번째 목요일 오후 7시 (목주기도 - 미사 - 성시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02-6374-2200

문의: 평화의 모후 선교회 02-2281-3236 / 010-7310-9678, 010-9922-5936

Fax: 02-2281-3245 e-mail : qpmmkr@gmail.com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해주소서! 마리아와 함께 부활로 걸어 가는 길 (1)

저자 :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O.F.M  
옮긴 이 : 이미림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이 작은 책에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할 때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고통을 당하신 성모님 곁에 있고 싶어할 때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순례자들인 우리에게, 그리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세계적으로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며 고통을 직면해야 하는 우리들이 잠시라도 예수님과 성모님 곁에 머무는 것은 참으로 큰 도움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새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십자가와 고통이 부활로 변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계셨던 성모님은 그분의 아드님과 함께 결코 당신을 혼자 내버려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을 함께 깊이 나누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성경 구절과 성모님의 메시지는 물론, 많은 사랑을 불어넣어 조각한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표현한 14처의 사진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태리의 조각가 까르멜로 뿐만 아니라 메주고리예에서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영감을 받아 조각한 모든 14처에는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으시는 성모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 이 책에 있는 십자가의 길 14처의 사진들은 예수님의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과 책을 당신에게 넘겨주면서 고통을 당하시는 구세주께,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도록 그분을 도와주셨으며 그분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어머니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언제나 서로 가까이 계셨으니, 이 십자가의 길을 다음과 같이 부릅시다.

예수, 마리아와 함께  
골고타 그리고 부활로 걸어가는 길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의 축복으로 가득찬 그릇이 됩니다. 특별히 이 축복이 십자가의 길 14처를 조각한 까르멜로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이 예술작품을 설치하도록 도와 준 가족들에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 성모님과 그분의 아드님께서는 당신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난과 그분 어머니의 고통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다음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임을 기억합시다.

- 고통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져서 이 고통들을 변화시켜 사랑이 되게 해주시기를...
- 수난 중에 지니셨던 예수님의 그 신뢰가 우리의 부족한 신뢰를 변화시켜 새 희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 고통 속에서 보여주신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일치가 우리의 모든 상처와 분열을 낫게 해주시기를...
-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보여주신 그 거룩한 용서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그 부르짖음이 우리 존재의 심연을 울려 선함과 사랑을 완전히 분발하게 해주시기를...
- 우리의 고통이 인류의 고통과 일치되게 해주시기를...
-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괴로움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변화시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해주시기를...
-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신 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부활의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 고통 속에서 보여주신 마리아의 그 충실함이 우리의 불성실함을 낫게 해주시기를...
- 예수님의 용기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이 자신의 악함을 드러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에 죄악이 발붙일 여지를 남겨두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기를...

- 인간의 격노와 증오가 우리 안에 격렬한 감정들이 일게 될 여지를 남겨두지 않도록 하게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기를...
- 그리스도의 수난과 마리아의 고통을 묵상함으로써 인간과 하느님이 만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워진 인간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보며 찬미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서두르게 되면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한다고 상처가 넣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시간을 낼 수 없다면, 메시지가 가슴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과 만남을 통해 변화된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게 되고, 사랑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며, 영혼과 육신이 치유된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십시오. **M**

(말씀 인용은 새 '성경'을 따랐음을 밝힙니다. 역자 주)  
(다음 호에 계속…)





##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주의 여왕 (3)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지음  
신경남 스테파노 옮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 발현 목격증인 미리야나 -2-

질문 : 이반카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미리야나 : 이반카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한 달 전에 돌아가신 엄마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반카의 엄마가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 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리야나 : 처음 며칠 동안 저희는 같은 장소를 찾아갔고,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성모님께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저희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저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성모님은 저희에게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저희에게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질문 : 그 때가 바로 성모님께서 비밀들에 관해 말씀하기 시작하신 때입니까?

미리야나 :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저희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사라예보에서 마약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겨우 15 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약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 그 모든 것에 대해 성모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리야나 :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밤새 한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성모님께서 제게 아무것도 걱정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말하건 그것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잘될 거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그러면 당신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미리야나 : 네! 저는 다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마약을 복용한다고 말한다면, 전 그냥 웃을 뿐이었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은혜로웠나 봅니다!

미리야나 : 물론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평화의 모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질문 : 그렇지만 초기에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본당신부, 시장, 경찰,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당신이 뭔가 날조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한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성모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까?

미리야나 : 성모님께서는 저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 성모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어머니입니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노래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저희의 진정한 어머니이심을 알아듣도록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는 그분과 함께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저희의 문제나 희망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듯 성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왜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이십니까?

미리야나 : 왜냐하면 성모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어머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분에게 주신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또 하느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질문 :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야나 : 육신의 어머니는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자녀에게 육체적 생명을 줍니다. 지상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함으로써 자녀들을 영원한 삶으로 이끕니다.

질문 : 그러면 지상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리야나 : 지상의 어머니는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그들의 자녀들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질문 : 당신이 성모님을 직접 만져본 적은 있습니까?

미리야나 : 저는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야콥이 성모님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야콥은 저희들 가운데 가장 어렸는데, 그 때 열 살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무릎을 끊고 있었고, 성모님께서 저희에게 발현하셨습니다. 그날은 8월 5일이었고, 성모님께서는 그날이 바로 당신의 생신날이라고 알려주신 날이었습니다. 야콥은 매우 흥분해 있고, 성모님이 발현하시자마자 손을 뻗어 그분을 만진 다음 외쳤습니다. "성모님, 생신을 축하드려요!" 저희는 야콥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야콥은 자신의 행동에 당황하며 성모님께 자신이 한 행동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야나 : 그분께서는 야콥의 손을 잡아 당신의 손 안에 꼬옥 쥐고 계셨습니다.

[필자가 미리야나를 처음 인터뷰 할 당시에는 그녀가 아직 사라 예보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을 공부하는 학부생이었다.]

질문 : 공부가 힘듭니까?

미리야나 : 매일 공부가 언제 끝날까 생각합니다.

질문 : 기도하면 좋은 성적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까?

미리야나 : 때때로 그렇지만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저는 예수님께 왜 더는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질문 :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미리야나 :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매일 발현하시는 동안, 성모님께서 당신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까?

미리야나 : 네. 성모님의 발현이 시작됐을 때 모든 사람이 저희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제가 메주고리예를 떠나 무엇인가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저에게 능력이 있고, 학교에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메주고리예를 떠나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미리야나 :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공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당신 삶과 관련된 어떤 다른 권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미리야나 : 네, 그분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너의 삶을 나에게 다오!

메주고리예에서 탄생된 '평화의 오아시스' 수도원,

지아니 스그레바 신부 / 평화의 오아시스 수도원 창설자

"나는 칼디에로 베로나에서 49년 3월 2일 태어난, 예수 고난회 신부입니다. 나는 신문기자와 의사가 직업인 친구들 몇몇과 함께 메주고리예 순례를 와서 함께 십자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1985년 7월, 마리야 파블로비치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따라 봉헌의 삶을 사는 공동체의 설립을 둘러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야는 12월 4일날 성모님의 발현 중에 성모님께서 수도원 설립에 대하여 나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좀더 구체적인 일들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 전날 한 젊은이가 나에게 고백성사를 본 일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 젊은이도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처럼 좋지 않은 생활을 한 다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젊은이에게도 모든 것을 성모님께 의탁하고 봉헌하도록 충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 발현 후에 그 청년이 다른 청년과 함께 나를 찾아와서 같이 십자가 산에 갈 것을 원했습니다. 12월

6일 오후 세시, 그 청년들은 큰 십자가 밑에 모여서 나에게 성모님께 완전히 봉헌된 삶을 살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같은 지향으로 기도할 것을 약속하였고, 서로의 마음에 큰 우정과 신뢰를 갖게 된 것으로 기뻐하며 헤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은 이 청년들과 나는 성모님께 봉헌된 삶을 생각해보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삶을 온전히 봉헌하기 위하여 나의 전 삶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몸과 마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토미슬라브 신부가 갑자기 나에게 9시 미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준비가 없어서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평소에 성모님 발현이 있는 작은 방에서 미사를 집전하게 되었습니다. 막 성체 분배를 끝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해서 부정할 여지가 없는 단호한 목소리가 나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너의 삶을 나에게 다오!" 정말 너무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나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가다

듬고 난 다음에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니 나의 모든 삶을 바꾸고 나를 온전히 봉헌하는 것이 깊은 평화로 느껴졌습니다. 그 평화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는 "좀 더 기도해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년 이 지난 지금 60명 가량의 젊은이들이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함께 봉헌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주고리예에 세 개의 숙소와 로마 근처의 삐에 뜨랄리치나(Pietralicina)에도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들의 삶을 성모님께 봉헌한 몇 명의 젊은이들과 나쁜 악습에서 해방되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3, 4년 전 이들의 신분증과 지금의 신분증에 있는 사진들을 본다면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하시는 성모님은 위대한 의사로서 많은 영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도원의 영성은 메주고리예에서 체험한 자신들이 변화와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수도회는 24시간 드리는 성체조배를 중심으로 기도와 관상을 공동체 생활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성체가 현시된 감실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그레고리안 성가로 성무일도를 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봉쇄 수도원은 아니며 일반 순례자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제, 남녀 수도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독신자, 기혼자들로 구성된 재속회가 있습니다. 공동체 가족들은 매일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도시간, 미사, 그리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일상 삶에서 실천하는 복음적인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예수 고난 회 종장 신부님도 우리 공동체의 영성과 발전을 보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셨습니다. 또한 각 지역 교구의 주교님들도 무척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있습-



니다. 나는 곧 미국을 방문 할 예정인데 미국 필라델피아와 뉴저지, 켄돈 교구에서도 공동체의 설립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파나마, 베네벤토, 벨기에의 몇몇 교구와 로마의 교구들과도 공동체 설립을 의논할 예정입니다."

1986년 8월 7일 설립된 "평화의 오아시스" 공동체는 1990년 12월 25일 로마 사비나

-포지오 미르테토 교구의 니콜라 로툰노 대주교에 의해 인준되었으며 지금은 9개 교구의 인준을 받았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성모님의 지향을 위해 빵과 물로 단식을 하는 이 공동체의 수도자들은 청빈, 청결, 순명의 허원 외에도 특별히 평화를 위한 전구의 허원을 한다. 또한 매일 미사, 성체 조배 1시간, 7번의 성무일도, 자유찬미기도, 묵주기도 15단, 십자가의 길 묵상과 더불어 공동체와 개인별로 24시간 성체조배를 하고 있다. 현재 12명의 사제를 포함하여 110명의 수도자와 일상 삶 안에서 '평화를 위한 전구'와 청빈, 청결, 순명의 허원을 실현하고 있는 독신자들과 결혼한 부부들로 구성된 재속회가 있다. 이 공동체는 이태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벨기에, 아일랜드, 스페인, 미국, 캐나다, 파나마, 뉴질랜드, 프랑스, 한국, 아프리카, 마오리지오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성소 지원자와 수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원은 로마 근교의 파소 코레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태리, 메주고리예, 브라질, 자마이카, 카메룬 등에 9개의 분원이 있다.

「Grazie cari figli, per aver risposto alla mia chiamata /  
사랑하는 자녀들아」에서 발췌

##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발 행 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편집인 : 남 그레고리

지 도 신 부 : 박창득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카푸친 작은형제회)

자 문 위 원 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웨인 외이블, 님기옥 (선교학 박사)

한 국 지 부 장 : 박연자

웹 관 리 자 : 윤경만

편 집 위 원 : 최성득, 최 레지나,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인 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동방인쇄



## 메주고리예 성모님과 함께 한 신혼 여행

이요한 보스코와 데레사 /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2007년 4월 말쯤 어느날, 무려 26여 년의 오랜 세월을 냉담자로 살아오던 나는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는 심경의 변화를 느끼고 발길을 성당으로 돌렸다. 성모님의 인도하심이었을까? 그 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레지오 마리에에 입단해서 데레사 단장의 인사말 중에 메주고리예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 그 당시 데레사 단장은 5월에 세 번째 메주고리예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었다. "다음 주에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메주고리예로 성지순례를 갈 거예요." 나는 메주고리예가 오래 전에 들었던 파티마 성지로 잘못 알아듣고 나도 알고 있으니, 카메라를 가져가기적 사진들을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 데레사는 흔쾌히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카메라에 가득 뿐려진 나의 향수냄새가 가득 뿐려진 카메라와 함께 세 번째의 성지순례를 떠났다. 두주 후에 메주고리예에서 돌아온 데레사는 성물, 사진, 음악, 그리고 체험 이야기들을 잔뜩 가지고 메주고리예에서 돌아왔다. 그 후 메주고리예에 대한 주변의 부족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어느 새 그곳은 나에게 데레사와 함께 가고 싶은 미래의 동반 성지순례지로 마음에 새겨졌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는 데레사와 나는 2008년 봄 즈음 메주고리예 순례를 다녀온 후에 혼배 성사를 올릴 계획이었다. 우리 사이를 잘 알고 있었던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매님이 서로가 오랫동안 독신으로 지내던 사람들더니 결혼을 서두르지 말고 미래를 위해 먼저 기도해보기를 권해서 이번 성지순례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본당신부님은 "죄짓고 메주고리예에 가기 전에 둘이 혼배성사부터 먼저 하고 가."라고 말씀하셨다. 본당신부님의 배려하심과 레지오 단원들과 기도모임 회원 등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갑작스러운 혼배성사를 올린 지 이틀이 지난 2007년 11월 29일 데레사와 나는 메주고리예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처음부터 신혼여행 가는 기분으로 여행 가방을 챙기는

것 보다는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메주고리예에 대한 호기심과 순례자로서 성스러운 영적 체험과 은총을 받고 싶은 기대감들로 마음이 들떠 있었다. 오랜 독신생활을 접고 동반자와 함께 결혼생활을 봉헌하려 메주고리예로 향하는 데레사는 나보다 먼저 세 번씩이나 메주고리예를 다녀왔으며 나에게는 분명 신앙의 선배이고 선교자였다.

이번 11월 메주고리예 성지순례는 순례단장 남그레고리오 형제님 부부를 비롯하여 박창득 몬시뇰님과 김알퐁소 두 분의지도 신부님들과 미국과 캐나다, 한국에서 온 순례자들과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음악봉사자들이 포함된 총 43명이 함께 했다. 모두들 다른 삶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지만 성모님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함께 체험하고자 서로를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는 하느님의 자녀들이었다. 또한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거룩한 성지에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현존하심과 성령을 체험하고 증거하면서 찬미드리는 한 뜻을 지향하는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였다.

데레사와 함께 피정을 포함한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여정이 신혼부부인 우리 결혼 생활에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임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메주고리예 도착 후, 우리들은 과거 마약 중독자였던 젊은이들이 기도와 노동을 통해 희망과 기쁨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체나콜로 공동체를 방문하고 매일 메주고리예 본당의 거룩한 저녁 예절에 참석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6명의 성모발현 목격증인의 한 명인 미리야나의 발현에 참석하여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는 현장에 함께하였다. 4박 5일의 일정으로 요조 조브코 신부님의 피정에 참여하였다. 요조 신부님은 메주고리예에서 한 시간 가량의 걸리는 시로키브리에 마을에서 성 가정 고아원을 운영하시며 피정 지도를 하고 계셨다. 피정은 대침묵 속에 빠듯하게 짜여있었고, 아침 6시 30분부터 요조 신부님이 인도해주시는 묵주기도의 묵상기도와 체험을 전해주시는 강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모든 의지와 욕망을 내려놓고 특별한 치유와 은총을 받을 수 있



었다.

본당 신부님의 배려하심으로 혼배성사를 서둘러 치룬 후 바로 성지순례 여정에 올랐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의 준비나 목적 없이 생전 처음으로 피정에 참가한 나는 군대에 바로 입대한 훈련병이나 다름없었다. 남 마르타 자매님의 훌륭한 동시통역과 함께 한 거룩한 영적 분위기의 피정을 통하여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냉담과 죄의식으로 몰아 넣었던 증오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26년 동안 차갑게 닫혔던 마음의 문은 차츰 열리고 있었다. 천 번을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이해 하려 했고 고해성사를 거듭 했어도 용서가 되지 않아 천륜을 저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잊히지 않았던 아버지! 내 평생 증오의 대상이었던 나의 친아버지를 이번 피정 중에 용서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오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과 용서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주시어 나를 회개하게 해주신 것이다. 이것이 이번 요조 신부님의 피정 중에 나와 아내 데레사가 받은 가장 큰 은총이자 축복이었다. 요조 신부님은 4박 5일 동안의 피정에서 참가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각각의 영혼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리게 하셨다. 말기 폐암 환자 두분을 비롯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한없는 주님의 은총을 받았으리라 믿는다. 피정이 끝날 즈음에서 우리는 이 피정의 무한한 영적 가치와 주님과 성모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한 훌륭한 사제의 삶과 열정을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요조 신부님과 아쉬운 이별을 미사로 마감하고 티할리나의 성당 안에 모셔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모님을 뵙고 메주고리예로 돌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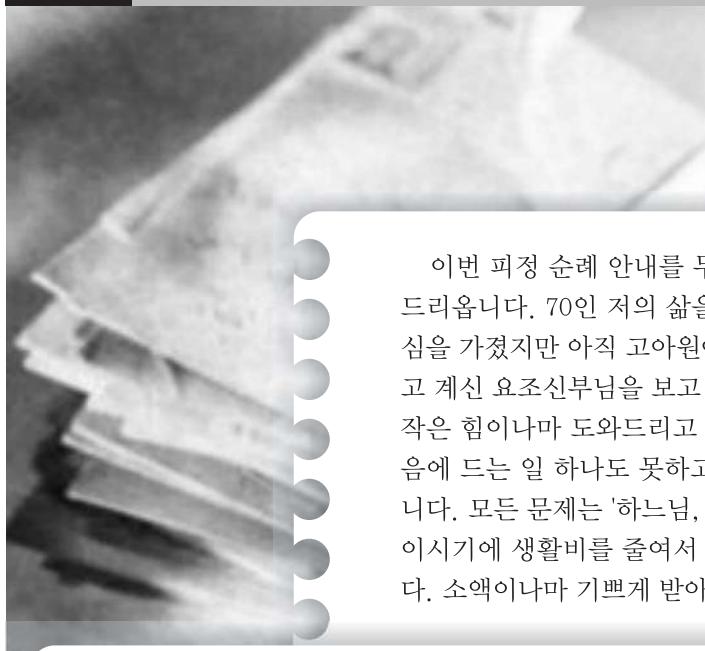
메주고리예의 발현산에는 어느 한국인 부부가 불치병에 걸린 아들의 기적적인 치유와 은총에 감사드리며 봉헌된 성모님이 발현언덕에 모셔져 있다. 또한 그곳에는 척박한 땅과 오랜 이상 기후에 의한 흉작을 면하고자 메주고리예 마을 사람들이 주변의 가장 높은 산정상에 피와 땀으로 만들어 하느님께 봉헌한 십자가산이 있다. 이곳은 순례자들이 반드시 등반하여야 할 거룩한 성지들이었다. 온통 모난 바위와 돌무더기들이 깔린 그곳 산길은 노약자

들은 엄두도 못 낼 것 같았으나 우리는 서로 돋고 기도하며 무사히 오를 수 있었다. 함께 십자가산에 있는 14처를 묵상하며 올라갈 때에는 체나콜로 공동체 젊은이들이 만든 가마를 타고 가는 폐암 말기의 바오로 형제님을 바라보면서 모두는 숙연한 마음으로 그분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던 중에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안으시는 13처에서 갑자기 박 신부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씀하시자 바오로 형제님은 그때부터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정상을 향해 걸어서 올라갔다. 우리 일행은 바오로 형제님이 걸어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체나콜로 형제들의 모습은 무척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메주고리예를 떠나기 전날 밤 9시 발현산에서 6명의 목격증인 중 한 명인 이반의 성모발현 현장에도 참석하였다. 나와 데레사는 이곳에서 받은 은총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거룩한 성지의 은총을 평생토록 체험하고 있는 메주고리예 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부러웠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다음에도 메주고리예 마을로 불러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짐을 챙겼다.

메주고리예를 떠나는 날 아침, 가랑비에 젖은 버스 유리창으로 보이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성 제임스성당을 뒤로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아드리안 해의 성곽도시 드브로브尼克으로 향했다. 그곳 안내자로부터 드브로브닉시와 성곽도시의 오랜 역사와 보스니아 내전 후에 대하여 들었다. 시대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내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성곽 안에 지어진 성당들을 보았고 1700년 전 순교한 실바노 성인의 썩지 않는 시신이 모셔진 성 브레이슬리 성당에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순례여정의 영적 체험과 친교의 추억을 간직하면서 돌아가기 전날 밤을 아드리안 해변을 바라보며 보내고 있었다.

이번 요조 신부님의 피정을 포함한 메주고리예 순례 중의 모든 체험이 모든 순례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은총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원하면서 성지순례에 우리들을 불러주시어 어머님의 따듯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린다. **M**



이번 피정 순례 안내를 무사히 잘 끝마치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옵니다. 70인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 제 나름대로 선행을 많이 한다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아직 고아원아이를 돌본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 고아를 키우고 계신 요조신부님을 보고 또 그늘진 표현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작은 힘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생의 '황혼'길에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 하나도 못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느님, 성모님'께 맡기고 과부의 은전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생활비를 줄여서 전쟁 고아 아이들의 학비로 조금이나마 보내드립니다. 소액이나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기도속에서 만납시다.

도미니카

## + 찬미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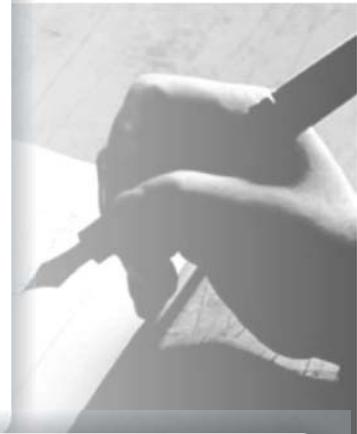
이번 피정과 순례 길을 인도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모님 품안 가까이로 인도해 주셔서... '걱정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 따라서 모든 일, 어머니 성모님과 예수님께 맡겨 드리고 평화 속에서 뜻을 따르렵니다.

기도 안에서...

'단순함'의 믿음속에서 '깊은 신앙'의 통로를 찾게 해주신 성모님께 감사의 마음...

삶속에 향기로 남아 앞으로 가야하는 길에 용기가 될 것입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성모님 사업에 은총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이번 피정순례를 통해 삶 속에 무지개를 보고 왔습니다.  
기도안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시몬



## + 찬미예수+

메주고리예에서의 시간은 너무도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정과 내어맡김의 열린 마음에서의 이끌어주심은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가장 소중한 날들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벌써 다시 그곳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두 분의 지극하신 정성에 다시 깊이 감사드리구요.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어머니 마을도 가보고 싶습니다. 두분 늘 건강하시며 온 가족 모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으시고 행복한 성탄 맞이 하세요. 그리고 작은 수술이었지만..."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은 생각지도 못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그렇게 가까이서 도와주심을 느낍니다.

단순하며 기쁘게 봉사하는 삶을 우리 어머니 성모님의 보호하심안에 살고봅니다.  
데레사